

건에서 인간이 사회적 관계들을 지배하고 조절할 수 있는 힘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미래 사회에서는 경제적 형태와 같은 토대에서뿐만 아니라 정치나 문화 형태와 같은 상부 구조에서도 자발적이고 의식적인 선택과 계획이 더 많은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라클라우와 무페는 마르크스주의의 이러한 토대 본질주의를 좀더 근본적으로 비판하면서 상부 구조의 자율성을 옹호한다. 이들은 알튀세의 이론에는 “중층 결정”(overdetermination) 개념과는 양립 불가능한 ‘최종 심급에서의 경제의 결정’(determination in the last instance by the economy)이라는 개념”(E. Laclau / C. Mouffe, *Hegemony & Socialist Strategy*, 98쪽)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전자만을 수용하고 후자는 거부한다. 최종 심급에서의 경제의 결정이라는 것은 경제에 최종적이고 본질적인 결정권을 주는 것으로 경제를 특권화하는 것이다. 정치적인 것에는 경제적인 것으로 환원되지 않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본질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마르크스주의의 경제 환원론이나 경제 결정론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처럼 정치에는 경제로 환원되지 않는 요소들이 존재하므로 경제적 토대가 상부 구조를 본질적으로 결정한다고 보는 관점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경제 결정론 대신에 상부 구조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관점을 수용해야 한다. 특히 억압적인 사회적 관계가 해소된 새로운 미래 사회에서는 정치나 문화와 같은 상부 구조에 속하는 요소들이 더욱 커다란 힘을 발휘할 수 있다.

II. 사회 구성체

(독: Gesellschaftsformation / 영: social formation)

1. ‘사회 구성체’ 개념의 역사적 배경

역사적 유물론에서 ‘사회 구성체’ 개념은 사회 형태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되는 핵심적 개념으로서 ‘경제적 사회 구성체’라고도 불린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한 사회의 특징과 그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물질적 토대와

이에 기반한 정신적, 제도적 상부 구조로 이루어진 사회 구성체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다. 그들은 한 사회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역사적 유물론의 기본 관점을 적용하여 물질적 생산 활동을 사회 생활 전반을 규정하는 핵심적 요소로 간주하여, 한 사회가 이러한 물질적 토대와 이에 기반한 정신적, 제도적 상부 구조가 통합된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보았다.

한 사회의 형태나 역사적 발전 단계를 파악하는 방식에는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다. 생산 활동에 사용하는 생산 도구의 주요 재료를 기준으로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등으로 구분할 수도 있고, 앨빈 토플러(Alvin Toffler)처럼 산업의 주요 분야를 기준으로 농경 사회, 산업 사회, 정보화 사회로 구분할 수도 있다. 또는 콩트(A. Comte)처럼 정신적인 측면에서 사고 방식의 변화를 기준으로 신학적 단계, 형이상학적 단계, 과학적 또는 실증적 단계의 사회로 구분할 수도 있고, 정치 형태를 기준으로 전제주의 사회, 민주주의 사회로 구분할 수도 있다.

그런데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한 사회의 이러한 물질적 생산의 측면과 사회 제도나 사상의 측면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였다. 사회의 물질적 생산의 측면과 사상이나 제도의 측면이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 생산의 측면이 사상이나 제도의 측면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양자가 하나의 사회 구성체 속에서 긴밀하게 통합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 구조를 하나의 건축물에 비유하여 물질적 생산 활동을 ‘토대’로, 정신적이거나 제도적인 요소를 ‘상부 구조’로, 그리고 이것들로 구성된 사회 전체를 ‘사회 구성체’로 부르게 되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독일 이데올로기』에서 ‘토대’ 및 ‘상부 구조’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지만 아직 ‘사회 구성체’라는 개념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으며, 그 대신에 ‘사회 형태’(Gesellschaftsform)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다. 마르크스는 『루이 보나파르트의 브뤼메르 18일』에서 ‘사회 구성체’(Gesellschaftsformation)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사용하였으며(K. Marx, *Der achtzente Brumaire des Louis Bonaparte*, 116쪽 참조) 그 이후에 역사적 유물론의 내용을 체계화한 『정치 경제학 비판』의 서문에서 토대와 상부 구조로 구성된 사회 형태를 가리키기 위해 ‘사회 구성체’ 또

는 ‘경제적 사회 구성체’(ökonomische Gesellschaftsformation)라는 개념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다(KPÖ 9쪽 참조). 여기서는 『독일 이데올로기』의 내용을 중심으로 다른 저작들의 내용도 참조하면서 사회 구성체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요소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2. 물질적 토대로서 생산 양식

1) 물질적 생산 활동의 중요성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인간의 삶에서 물질적 생산 활동이 중요하다는 점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 “모든 인간 역사의 제 1 전제는 물론 살아 있는 개인들의 존재이다”(DI 20쪽/58쪽)라고 하면서 인간의 역사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우선 개인들이 생존할 수 있어야 하면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물질적 생산 활동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유물론적 역사관의 출발점도 자의적인 것이나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것, 즉 물질적 생산 활동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생산 활동이야말로 인간이 동물로부터 구분되기 시작한 결정적 계기가 된다.

“인간은 의식에 의해서, 종교에 의해서, 그밖에 사람의 의욕하는 것에 의해서 동물과 구별될 수 있다. 인간은 자신의 생계 수단을 생산하기 (produzieren) 시작하면서부터 자신을 동물과 구별하기 시작한다.”(DI 21쪽/58쪽)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인간의 이성이나 종교, 언어를 갖고 있지만 동물은 그렇지가 못하다. 그런데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인간과 동물의 이러한 차이를 발생시키는 최초의 계기는 인간의 정신적 활동이 아니라 인간의 물질적 활동인 ‘생계 수단의 생산’이라고 말한다. 동물들은 자연에 널려져 있는 먹이를 주어진 그대로 섭취하는 데 그치고 있지만 이에 비해 인간은 자신의 양식을 스스로 생산한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이미 『경철 수고』에서 ‘유적 존재’로서 인간의 본질적 측면은 자유롭고 목적 의식적 활동인 노동이라고 말하였다. 목적 의식적인 물질적 생산 활동이야말로 역사의 출발점이자 결정적 요소인 것이다.

“생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음식, 주거, 의복 그리고 그 밖의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최초의 역사적 행위는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수단의 산출, 곧 물질적 생활 자체의 생산이다. 그리고 실로 이것은 단순히 인간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천 년 전과 마찬가지로 오늘날로 시시각각으로 충족시켜야 할 역사적 행위, 모든 역사의 기본 조건이다.”(DI 28쪽 / 67-68쪽)

인간은 생존하기 위해서 의식주를 생산해야 하며, 이러한 생산 활동은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여전히 중요한 역사의 기본 조건이다. 그래서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역사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생산의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고 여기에 정당한 지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2) 생산 양식의 변화로서 역사

그렇다면 인간의 삶이나 사회는 어떻게 역사를 갖게 되었는가? 인간의 삶이나 사회에 일정한 변화나 발전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생산 방식의 변화에서 찾고 있다.

“인간은 역사를 갖는다. 왜냐 하면 인간은 자신의 삶을, 그것도 특정한 방식으로 생산해야 하기 때문이다.”(DI 30쪽 / 71쪽)

인간에게 역사가 있는 것은 인간의 삶의 방식이 시대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이다. 만약 인간이 동일한 삶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면 인간의 역사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동물의 삶에 역사가 없는 것은 동물이 본능에 따라 살면서 항상 동일한 삶의 방식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인간의 삶의 방식은 시대에 따라 많은 변화 또는 발전을 겪게 되는데, 이것은 생계 수단을 생산하는 생산 방식의 변화 때문이다.

“인간이 자신의 생계 수단을 생산하는 방식은 무엇보다도 그 앞에 주어지고 또한 재생산해야 하는 생계 수단의 성질에 달려 있다. 이러한 생산 양식은 단순하게 개인들의 육체적 생존의 재생산이라는 측면에서만 고찰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것은 이러한 개인들의 일정한 활동 방식이고, 자신의 삶을 표현하는 일정한 방법이며, 일정한 생활 양식인 것이다.”(DI

21쪽 / 59쪽)

생계 수단을 생산하는 방식으로서 ‘생산 양식’(Produktionsweise)은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인간이 자신의 삶을 표현하는 활동 방식으로서도 중요하다. 인간이 자신의 생계 수단을 생산하는 방식이나 또는 자신의 삶을 표현하는 방식이 바로 생산 양식인데, 이러한 생산 양식은 시대나 사회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를 취하고 있다. 생산 양식은 모든 시대나 사회에서 항상 동일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발전 단계나 수준에 따라서 상이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이러한 생산 양식의 변화와 발전이 사회 형태의 변화와 발전을 가져옴으로써 인간의 삶에 역사가 출현하였다고 보았다.

3) 생산력과 생산 관계

마르크스와 엥겔스에 따르면 이러한 ‘생산 양식’의 변화와 발전에서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 것은 ‘생산력’(Produktivkräfte)과 ‘생산 관계’(Produktionsverhältnisse)이다. 즉 어떤 사회의 생산력의 수준과 생산 관계의 형태가 그 사회의 생산 양식을 결정한다. 그리고 이러한 생산력의 발달 수준을 가늠하는 지표가 되는 것은 분업의 발달 정도이다.

“한 국가의 다른 국가에 대한 관계뿐만 아니라 이 국가 자체의 전반적인 내부 구성까지도 그들의 생산의 발전 단계와 내부 및 외부 교류의 발전 단계에 따라 규정된다. 한 국가의 생산력이 얼마나 발전했는가는 분업의 발전 정도에 따라 가장 명백히 나타난다. 각각의 모든 새로운 생산력은 그것이 기존 생산력의 단순한 양적인 확대(예컨대 경작지의 개간)가 아닌 한, 새로운 분업의 형성을 가져온다.”(DI 21-2쪽 / 59쪽)

국가들 사이의 상호 관계뿐만 아니라 또한 한 국가 내부의 사회 형태도 그 사회의 생산력과 교류 방식에 의해서 규정된다는 것이다. 즉 생산력의 발전 수준과 교류 방식이 그 사회의 전반적인 삶의 양식, 예를 들면 생산 양식이나 사회 형태를 결정하게 된다. 그리고 생산력의 발전은 새로운 형태의 분업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한 사회의 분업의 형태를 통해서 그 사회

의 생산력의 발달 수준을 알 수 있다.

(1) 생산력

‘생산력’(Produktivkräfte)이란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물질적 재화를 창출해 내기 위해 사용되는 모든 능력을 가리킨다(H. Steußloff, 『역사적 유물론』, 50쪽 참조). 마르크스는 『자본론』에서 노동이란 자연을 변형하는 활동인데, 이러한 “노동 과정의 기본 요소들은 인간의 합목적적 활동 즉 노동 그 자체와 노동 대상, 노동 수단이다”(Kapital I 193쪽)라고 말한다. 즉 노동이 이루어지려면 인간의 노동력과 노동 대상, 노동 수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노동력’(Arbeitskraft)이란 “어떤 종류의 사용 가치를 생산할 때마다 운동시키는 육체적 정신적 능력의 총체”(Kapital I 181쪽)를 가리킨다. 즉 노동력이란 노동을 할 수 있는 힘으로서 인간이 생산 과정에서 사용하는 육체적, 정신적 능력 전체를 의미한다. ‘노동 대상’(Arbeitsgegenstand)이란 토지나 원목, 광석처럼 노동이 가해지는 대상을 가리킨다(Kapital I 229쪽 참조). ‘노동 수단’(Arbeitsmittel)이란 “노동자가 자기와 노동 대상 사이에 끼워 넣어, 이 대상에 대한 그의 작용의 전도체로서 이용하는 물건 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의 복합체”(Kapital I 194쪽)를 가리킨다. 그리고 노동 수단에는 기계나 도구와 같은 ‘생산 도구’(Produktionsinstrument)뿐만 아니라 그 밖에도 건물이나 에너지, 운송 수단, 통신 수단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이러한 노동 대상과 노동 수단을 총괄해서 ‘생산 수단’(Produktionsmittel)이라고 부른다(Kapital I 232쪽 참조). 마르크스는 “사회적인 생산의 형태가 어떤 것이든지 간에, 노동자와 생산 수단은 항상 생산력의 요소이다”(Kapital II 42쪽)라고 말한다. 따라서 생산력이란 생산 과정에서 사용되는 요소들, 즉 노동력 및 생산 수단(노동 대상과 노동 수단)이 결합된 복합적 힘이라고 할 수 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이러한 생산 수단들 중에서도 특히 노동 수단이 그 사회의 생산력의 수준을 보여주는 척도가 되며 나아가 사회 관계와 사회 형태를 규정하는 핵심적 요소라고 본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독일이데올로기』에서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생산 도구에서 출발했고, 여기서 일정한 산업 단계에 도달하면 이미 사적 소유는 필연적이라는 사실을 지적했다.”(DI 66쪽/117쪽)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노동 수단 특히 생산 도구의 발달 과정을 검토하면서, ‘자연 발생적 생산 도구’가 ‘문명적 생산 도구’로 발전함에 따라서 사회 관계와 사회 형태에서도 많은 변화가 발생했다고 말한다. 자연 발생적인 생산 도구를 사용하는 사회에서는 인간의 노동력과 자연 사이에 교환이 일어나고 분업도 아직 발생하지 않은 데 비해, 문명적 생산 도구를 사용하는 사회에서는 자본과 화폐를 매개로 하여 주로 인간과 인간 사이에 교환이 일어나고 분업도 많이 이루어졌다(DI 65-6쪽/116-7쪽 참조). 그리고 이러한 생산 도구의 발전은 생산력의 발전을 가져오고 나아가 소유 관계의 형태를 규정한다. 예를 들면 문명적인 생산 도구를 사용하는 사회에서는 분업과 산업이 발달하면서 사적 소유 형태가 등장한다. 마르크스는 이와 관련하여 『자본론』에서도 노동 수단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멸종한 동물 종족의 신체 조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유골의 구조가 가지는 것과 동일한 중요성을, 멸망한 경제적 사회 구성체를 탐구하는 데 있어서는 노동 수단의 유물이 갖고 있다. 경제적 시대를 구별하는 것은 무엇이 생산되는가가 아니고 어떻게, 어떠한 노동 수단으로 생산되는가 하는 것이다. 노동 수단은 인간의 노동력 발달의 척도일 뿐만 아니라 노동이 그 속에서 수행되는 사회적 관계의 지표이기도 하다.”(*Kapital I* 194-5쪽)

마르크스는 인간을 “도구를 만드는 동물”(a toolmaking animal)이라고 정의한 프랭클린(B. Frankling)의 말을 인용하면서, 노동 수단이 “생산의 골격이자 근육 계통”으로서 생산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맡고 있다고 본다(*Kapital I* 230-1쪽 참조). 노동 수단은 인간이 육체적, 정신적 능력을 발휘하여 만든 것으로서 인간의 노동력의 발달 정도와 함께 생산력의 수준을 보여주는 척도가 된다. 그리고 이것은 나아가 생산 과정에서 맺게 되는 사회 관계뿐만 아니라 한 사회의 사회 구성체의 형태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된다. 그래서 노동 수단은 경제적 시대나 사회 구성체를 구분

하는 지표가 되기 때문에 마르크스는 “손절구가 봉건 영주의 사회를 낳았다면, 증기 제분기는 자본가의 사회를 낳았다”고 말한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들이 이렇게 노동 수단, 특히 생산 도구의 개선을 통해서 생산력을 향상시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이러한 생산력의 발전을 인간의 욕구와 관련해서 설명한다.

“[역사의] 두 번째 전제는 충족된 최초의 욕구 자체 및 그 충족 행위와 이미 획득한 충족 수단이 새로운 욕구(Bedürfnis)를 낳는다는 것이다. — 이러한 새로운 욕구 산출이 최초의 역사적 행위이다.”(DI 28쪽/68쪽)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역사의 제 2전제로서 인간의 욕구 충족과 이에 따른 새로운 욕구의 형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인간은 생존하기 위해서는 생산 활동을 해야 하는데, 만약 이러한 기본적인 욕구 충족에만 만족하여 여기에 그친다면 역사의 발전은 없게 되고, 그 상태에 머무르게 된다. 그러나 인간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욕구를 갖게 되며 따라서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새로운 생산 도구를 제작하게 된다. 새로운 욕구의 창출이 새로운 생산 도구를 낳게 하여 생산력을 향상시키며 이로 인해 역사에서 변화와 발전도 있게 된다. 이처럼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욕구의 확대가 생산력 및 역사의 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2) 생산 관계

그런데 이러한 분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생산은 사회적 활동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생산 과정에서 타인과 일정한 사회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회적이라는 것은 생산이 어떠한 조건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그리고 어떤 목적을 갖고 이루어지든 간에 다수 개인들의 협업으로 이루어진다는 의미이다. 이로부터 특정한 생산 양식 또는 산업적 단계들은 항상 특정한 협업 양식 또는 각 사회적 단계와 결합된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협업 양식은 그 자체가 하나의 ‘생산력’이라는 것,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생산력의 양이 사회적 상태를 조건지우고, 따라서 ‘인류의 역사’는 산업 및 교환의 역사와 관련하여 연구되고 개작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도출될 수 있

다.”(DI 30쪽 / 70쪽)

다수의 개인들이 협동을 통해서 재화를 생산하기 때문에 개인들은 생산 과정에서 분업이나 협업과 같은 일정한 사회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 관계는 그 사회의 생산 양식이나 산업의 발전 단계와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생산 양식이나 산업의 발전 단계에 따라 사회 관계도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협업 양식과 같은 사회 관계는 ‘그 자체가 하나의 생산력’이라고 할 정도로 생산력을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커다란 영향을 준다. 그리고 이러한 협업 양식과 같은 사회 관계와 생산력은 생산 양식을 규정하고 나아가 한 사회의 형태나 구조를 조건지운다. 그래서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역사나 사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항상 이러한 생산력이나 생산 과정에서 맺게 되는 사회 관계와 같은 물질적 토대를 중심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개인들이 생산 과정에서 맺게 되는 사회적 관계를 ‘교류’ 또는 ‘교류 형태’라고 표현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생산은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비로소 나타난다. 그것은 또한 개인들 사이의 교류(Verkehr)를 전제로 한다. 이러한 교류의 형태는 다시 생산에 따라서 조건지워진다.”(DI 21쪽 / 59쪽)

생산 활동은 인구가 증가하면서 협동 작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즉 생산이라는 것은 한 개인의 단독적 행위가 아니라 집단적인 사회적 행위이다. 따라서 생산 과정은 개인들 사이의 일정한 상호 교류나 상호 관계를 전제로 한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생산 과정은 이러한 상호 교류의 형태를 다시 규정한다. 즉 상호 교류의 형태가 생산 과정을 규정하고, 반대로 생산 과정이 상호 교류의 형태를 규정하기도 한다.

“지금까지의 모든 역사 단계에서 존재했던 생산력에 의해 조건지워지고, 거꾸로 그것을 조건지우는 교류 형태(Verkehrsform)가 바로 시민 사회이다.”(DI 36쪽 / 78쪽)

‘생산력’이 ‘교류 형태’를 조건지우기도 하지만 반대로 ‘교류 형태’가 ‘생산력’을 조건지우기도 한다는 것이다. 즉 생산력과 교류 형태는 서로가 서로를 조건지우고 규정하는 상호 작용의 관계를 맺고 있다. 『독일 이데올로기』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러한 용어들은 아직 세련된 형태는 아니지만 생산 양식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과 그 관계들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교류’나 ‘교류 방식’, ‘교류 형태’라는 용어는 생산 과정에서 인간과 인간이 맺게 되는 사회 관계를 가리키고 있는데, 이 용어는 나중에 『정치 경제학 비판』의 서문이나 『자본론』 등의 저서에서는 ‘생산 관계’(Produktionsverhältnisse)라는 용어로 정립된다.

“인간은 자신들의 생활을 사회적으로 생산하는 데 있어서 자신들의 물질적 생산력의 일정한 발전 단계에 상응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의지로부터 독립된 필연적인 일정한 관계, 즉 생산 관계(Produktionsverhältnisse)를 맺게 된다.”(KPÖ 8쪽)

따라서 앞에서 인용한 『독일 이데올로기』의 내용은 생산력과 생산 관계의 상호 작용을 언급하고 있는 부분으로 볼 수 있다. 인간은 생산 과정에서 일정한 사회 관계 즉 생산 관계를 맺게 되는데, 이러한 생산 관계는 생산력에 의해서 규정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생산 관계가 생산력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따라서 생산 양식을 구성하고 있는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생산력과 생산 관계는 서로를 전제로 하고 규정하면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상호 작용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3) 소유 관계와 계급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생산 과정에서 인간과 인간이 맺게 되는 이러한 생산 관계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을 ‘소유 관계’(Eigentumsverhältnisse)로 본다. 그리고 이러한 소유 관계의 형태는 분업의 형태를 비롯한 생산력의 발달 수준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말한다.

“한 국가 내에서의 분업은 우선 농업 노동으로부터 산업, 상업 노동의 분리를 가져오고, 그에 따른 도시와 농촌의 분리와 양자의 이해 대립을 가

저온다. [...] 분업의 발전 단계가 다양해지면 소유의 형태도 그만큼 다양해진다. 다시 말해서 분업이 그때그때 도달한 단계들은 노동의 재료, 도구 및 생산물과 관련된 개인들 상호간의 관계도 규정한다.”(DI 22쪽 / 59-60쪽)

분업은 우선 농업 노동과 산업, 상업 노동의 분리, 그리고 이에 따른 농촌과 도시의 분리에서 출발한다. 그런 다음에 산업 노동과 상업 노동이 분리된다. 이렇게 분업이 이루어지고 생산력이 발달하면서 노동 방식도 다양해지고 이로 인해서 생산 수단의 소유 관계를 비롯한 생산 관계도 다양해진다.

개인들은 생산 과정에서 소유 관계를 비롯한 다양한 생산 관계를 맺게 된다. 예를 들면 노동의 재료와 같은 노동 대상이나 생산 도구와 같은 노동 수단을 누가 어떻게 소유하고 있는가, 분업이나 협업의 과정에서 어떤 조직 형태를 취하고 있는가, 생산된 재화를 어떻게 분배하고 있는가와 관련하여 다양한 사회 관계를 맺게 된다. 즉 생산 과정에서 생산 수단의 소유 형태를 둘러싸고 일정한 ‘소유 관계’를, 생산자들의 조직 형태를 둘러싸고 일정한 ‘조직 관계’를, 생산물의 분배 형태를 둘러싸고 일정한 ‘분배 관계’를 맺게 된다. 그런데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이 중에서도 생산 수단의 소유 형태를 둘러싼 소유 관계가 가장 중요한 관계로 작용하면서 이것이 다른 관계들을 규정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처럼 개인들은 생산 과정에서 소유 관계를 비롯한 다양한 생산 관계를 맺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개인들 사이에 이해 관계의 대립이 발생하게 된다. 생산 수단의 소유나 생산물의 분배를 둘러싸고 개인들 사이에 대립과 갈등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소유 관계나 분배 관계와 같은 생산 관계에서 개인들이 차지하는 위치나 이해 관계에 따라서 ‘계급’(Klasse)과 함께 ‘계급 관계’(Klassenverhältnisse)가 형성된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하나의 사례로서 근대에 시민 계급이 형성되는 과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중세 후반에 생산과 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생산 관계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이에 따라 동일한 이해 관계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근대적 시민 계급, 즉 부르주아지가 형성된다.

“개별 시민들의 생활 조건은 기존 관계에 대한 대립과 그로부터 생긴 노동 방식에 따라서, 그들에게 공통적이면서도 동시에 그들 각자로부터 독립된 그런 조건으로 되었다. [...] 이 공동의 조건들은 계급적 조건으로 발전하였다. 동일한 조건, 동일한 대립, 동일한 이해 관계는 대체로 동일한 풍습을 낳게 마련이다.”(DI 53쪽 / 101쪽)

개별 시민들은 농촌 귀족과 같은 봉건 세력에 대항하여 도시의 상업과 산업을 지키려고 한다는 점에서 공동의 생활 조건을 갖고 있다. 이것은 그들이 기존의 노동 방식과 다른 새로운 노동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데서 기인한 것이며, 이것은 나아가 그들에게 공동의 이해 관계를 갖도록 하였다. 바로 이러한 공동의 노동 조건 및 이해 관계와 같은 동일한 생활 조건이 계급의 기반으로 작용하면서 하나의 계급을 발생시킨다. 계급의 형성은 물질적 생산 조건, 특히 물질적 이해 관계를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소유 관계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 생산 관계, 특히 생산 수단을 둘러싼 소유 관계에서 동일한 위치나 이해 관계를 갖고 있는 집단이 하나의 계급으로 형성되는 것이다. 이처럼 분업이나 노동 수단과 같은 생산력의 발전이 생산 관계, 특히 소유 관계의 변화를 가져오면서 나아가 계급 관계까지도 규정하게 된다.

4) 생산 양식의 종류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생산력의 발달을 기반으로 한 생산 관계, 특히 소유 관계의 발전을 중심으로 하여 역사에 등장하는 생산 양식의 형태들을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구분하면서, 이와 관련된 생산 조직이나 계급 관계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1) 원시 공동체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생산력의 발달과 함께 소유 형태도 일정한 발달 단계를 거친다고 보면서 최초의 소유 형태를 ‘부족 소유’로 보았다.

“소유의 최초 형태는 부족 소유(das Stammeigentum)이다. 이것은 생산의 미발전 단계에 상응하는 것이다.”(DI 22쪽 / 60쪽)

부족 소유는 수렵, 어로, 목축 등을 하는 단계로서 아직 분업의 정도를 비롯한 생산력의 발달 수준이 아주 낮은 단계이다. 분업의 수준은 단지 가족 내부에서의 자연 발생적 분업이 확장된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사회 조직도 가족이 확대된 단순한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그 구성원도 가부장적 부족장, 부족 구성원, 노예로 구성되어 있지만, 노예제는 아직 정착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러한 원시 사회의 모습과 관련하여 엥겔스는 『가족, 사유 재산, 국가의 기원』(1884년)에서 1860년대 초까지는 원시 사회의 가족 형태나 사회 형태에 대한 사회 과학적 지식을 제대로 갖고 있지 못하였다고 말한다. 이러한 원시 사회의 형태에 대한 결정적인 지식은 모오간(L. H. Morgan)이 저술한 『고대 사회, 또는 야만에서 미개를 거쳐 문명에 이르는 인류의 진보 과정에 대한 연구』(1877년)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이다. 엥겔스는 모오간의 연구 성과물을 바탕으로 유물론적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노동의 발전이 미약할수록, 그 생산물의 양이 제한될수록, 따라서 사회의 부가 제한될수록 사회 제도는 혈연적 유대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높아진다. 그런데 혈연적 유대에 기초한 이 사회 구조 속에서 노동 생산성이 점차 증대되며, 이와 함께 사적 소유 및 교환, 빈부의 차이, 타인의 노동력에 대한 이용 가능성, 따라서 계급적 적대의 기초가 점차 발전한다. [...] 혈연적 유대에 기초하는 낡은 사회는 새로 발전한 사회 계급들간의 충돌로 말미암아 붕괴되고, 그 대신 지배권이 국가에 집중된 새로운 사회가 출현한다.”(F. Engels, *Der Ursprung der Familie, des Privateigentums und des Staats*, 6쪽)

노동 생산성이 낮은 원시 사회에서는 혈연적인 유대에 기초하여 사회가 구성되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사회 구조가 단순한 가족적 형태에 머무르고 있어서 사회 구성도 단순하며, 아직 계급 관계도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낮은 생산력으로 인해서 아직 계급이나 국가가 형성되지 않은 이러한 원시 사회에 대한 연구는 계급 관계보다는 가족 관계의 발달 형태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정치 경제학 비판』(1859년)의 서문에서는 『독일 이데올로기』에서와는 다르게 사회 구성체로서 부족 소유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

고 있지 않지만, 이러한 모오간의 연구 성과를 접한 다음인 「V. I. 자술리치의 편지에 대한 답신의 초안」에서는 원시 사회를 토지에 대한 공동 소유가 사회 경제적인 토대가 되는 최초의 또는 선사 시대의 사회 구성체로 간주하고 있다(K. Marx, “Brief an V. I. Sassulitsch”, 388-9쪽 참조). 이처럼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원시 사회에 대한 사회 과학적 지식을 습득한 다음에는 이러한 ‘부족 소유’ 대신에 ‘원시 공동체’를 최초의 소유 형태이자 사회 구성체로 보게 되었다.

(2) 고대 노예제 및 아시아적 생산 양식

최초의 소유 형태인 부족 소유 또는 원시 공동체는 생산력이 발전하고 분업이 진척되면서 사적 소유가 형성되고 이와 더불어 계급과 국가도 출현하게 된다.

“제 2형태는 고대적 공동 소유 및 국가 소유”(das antike Gemeinde- und Staatseigentum)이다(DI 22쪽 / 60쪽).

이 단계는 공민(Staatsbürger)이 공동체 내에서 노예를 지배할 권력을 가졌다는 점에서 공동 소유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 조직은 부동산의 사적 소유가 발전함에 따라서 붕괴한다. 그리고 도시와 농촌의 대립이 발생하고 나아가 시민과 노예 사이에 계급 관계가 완전하게 형성된다.

마르크스는 『정치 경제학 비판』의 서문에서 이러한 소유 형태에 기반한 생산 양식을 “아시아적 생산 양식”(die asiatische Produktionsweise) 및 “고대적 생산 양식”(die antike Produktionsweise)이라고 부른다. 아시아적 생산 양식은 역사에 나타난 최초의 계급 사회로서 원시 사회로부터 직접적으로 발전한 생산 양식이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서남 아시아 및 인도의 고대 계급 사회를 아시아적 생산 양식으로 규정하였다. 이것은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는 촌락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데 치수나 전쟁과 같은 공동의 활동을 위해서 권력이 요구됨에 따라 점차 관료 계급이 형성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노예제 관계도 등장한다. 이에

비해 고대적 생산 양식은 고대의 노예제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노예 소유자가 생산 수단과 생산에 종사하는 노예를 소유하여 생산 활동을 하는 생산 양식이다(한국철학사상연구회 편, 『철학대사전』, 814-5쪽, 226-7쪽 참조).

그런데 이러한 아시아적 생산 양식이 독자적인 하나의 생산 양식으로 간주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스토이스로프(H. SteuBloff)에 따르면 어떤 사람들은 아시아적 생산 양식을 노예제에 선행하는 특수한 경제적 사회 구성체로 즉 초기 계급 사회로 여기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마르크스가 이 용어를 동양의 봉건적 생산 양식이 지니는 특성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했기 때문에 하나의 독자적인 사회 구성체는 아니라고 말하기도 한다(H. SteuBloff, 『역사적 유물론』, 144쪽 참조).

(3) 봉건제

고대의 노예제 생산 양식은 생산력이 발전하면서 점차 붕괴되고 이어서 봉건적, 신분적 소유 형태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생산 양식이 등장하게 된다.

“제 3형태는 봉건적 혹은 신분적 소유(das feudale oder ständische Eigentum)이다.”(DI 24쪽/62쪽)

고대가 도시에서 출발했다면, 중세는 농촌에서 출발했으며, 이것의 조직 방식은 게르만 병제의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봉건적 소유도 하나의 공동체를 기초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노예가 아니라 예농적 소농민이 생산을 담당하는 계급이 되었다. 봉건적 조직은 피지배 계급에 맞서는 하나의 연합 조직을 형성하고 있었으며, 도시에서는 봉건적인 수공업 조직이 형성되었는데, 이 동업 조합(Zunft)에서는 직인과 도제라는 위계적인 질서가 성립되었다(DI 24-25쪽/62-64쪽 참조).

이처럼 봉건 시대의 주요 생산 관계는 토지에 속박된 농노와 이러한 토지를 소유한 영주 사이의 관계였으며, 다른 한편으로 동업 조합에 속박된 도제와 이러한 동업 조합을 통제하는 장인 사이의 관계였다. 그렇지만 이것은 소규모의 조야한 토지 경작과 수공업적 산업이라는 편협한 생산 관계에 머무르고 있었으며, 분업은 크게 진척되지 못하였다. 신분은 농촌에

서는 영주, 귀족, 승려, 농민으로, 도시에서는 장인, 직인, 도제, 천민으로 분화되었다. 마르크스는 『정치 경제학 비판』의 서문에서 이러한 소유 형태에 기반한 생산 양식을 “봉건적 생산 양식”(die feudale Produktionsweise)이라고 부르고 있다.

(4) 자본주의

중세의 봉건제 생산 양식은 상업과 산업이 발달하고 대공장이 들어서면서 생산력이 크게 향상됨에 따라 점차 붕괴되고 그 대신에 근대적 사적 소유에 기반한 새로운 생산 양식이 등장하게 되었다.

“부족 소유는 봉건적 토지 소유, 협업적 동산 소유, 매뉴팩처어 자본과 같은 여러 단계들을 거쳐서 마침내 대공업과 보편적인 경쟁에 의해 조건지워지는 근대적 자본으로 발전한다. 다시 말해서 일체의 공동체적 가상을 벗어버리고 소유의 발전에 대해 국가가 행사할 수도 있는 일체의 영향을 배제한 순수한 사적 소유로까지 발전하는 것이다. 이 근대적 사적 소유(das moderne Privateigentum)에 근대 국가가 조응한다.”(DI 62쪽/112쪽)

소유의 제 4형태는 ‘근대적 사적 소유’이다.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근대적 사적 소유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소유의 제 4형태’라고 부르고 있지는 않았지만 소유의 제 3형태인 봉건적 소유가 무너지고 이어서 근대적 사적 소유가 등장한다고 소유 형태의 발전 과정에 대해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소유의 제 4형태’라고 볼 수 있다.

중세 후반에 도시들 사이의 분업이 진전됨으로써 동업 조합을 넘어서는 매뉴팩처어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외국과의 교류 증가와 인구의 집중으로 인해서 넓은 시장이 형성되고 이에 따라 매뉴팩처어가 확대되기 시작한 것이다. 기계를 사용하는 노동은 커다란 발전 능력을 보여주었는데 이러한 매뉴팩처어는 직물업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었다(DI 55쪽/104쪽 참조). 이러한 매뉴팩처어의 등장과 더불어서 소유 관계에서도 변화가 발생하였다. 자연 발생적인 신분적 자본을 넘어서는 상인 자본이 출현하였으며, 이것은 일종의 근대적 의미의 자본이라고 할 수 있다.

“매뉴팩처어와 동시에 고용주에 대한 노동자의 변화된 관계가 나타났다. 동업 조합에서는 직인과 장인 사이에 가부장적 관계가 존재했으나, 매뉴팩처어에서는 그것 대신에 노동자와 자본 사이에 화폐 관계가 나타난다.”(DI 56쪽 / 105쪽)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생산력의 발전에 따라서 소유 관계를 비롯한 생산 관계가 변화함을 말하고 있다. 매뉴팩처어의 등장으로 봉건적인 장인과 직인이라는 가부장제적 관계 대신에, 화폐를 매개로 한 자본가와 노동자라는 임노동 관계가 성립하게 되었다.

아메리카의 발견, 동인도 항로의 발견 등으로 교류가 확대되고 이로 인해서 매뉴팩처어 생산도 크게 증가하였다. 상업과 항해 기술의 발달은 세계 시장을 확대시켰다. 그렇지만 기존의 매뉴팩처어 생산력만으로는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가 없어서 대공업이 출현하게 되었다. 대공업은 인위적 동력, 기계 장치, 분업 등을 토대로 한다. 대공업은 경쟁을 보편화하여 교류 수단과 근대적 세계 시장을 확립했으며, 상업을 산업에 종속시켰고, 자본을 산업 자본으로 전환시켰으며, 자본의 유통과 집중을 야기시켰다(DI 56-9쪽 / 105-9쪽 참조).

이처럼 근대적 사적 소유의 형태, 즉 자본주의적 소유의 형태는 대규모의 분업과 자동적인 기계 장치를 채택한 대공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 계급 관계는 생산 수단을 전적으로 소유한 자본가 계급과 이러한 자본가 계급에게 고용되어 임금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 계급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르크스는 『정치 경제학 비판』의 서문에서 이러한 소유 형태에 기반한 생산 양식을 “근대 부르주아적 생산 양식”(die moderne bürgerliche Produktionsweise) 즉 자본주의 생산 양식이라고 부르고 있다.

(5) 공산주의

소유의 제 5형태는 공산주의적인 공동체적 소유이다.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독일 이데올로기』에서 이러한 공동체적 소유를 ‘소유의 제 5형태’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자본주의적인 사적 소유의 형태가 무너지고 이어서 공산주의적인 공동체적 소유가 등장한다고 소유 형태의

발전 과정에 대해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소유의 제 5형태는 ‘공산주의적 공동체적 소유’라고 할 수 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분업과 자동화 기계를 기반으로 한 대공업은 생산력을 크게 향상시켰지만 그러나 자본주의적인 사적 소유 형태는 이러한 생산력과 모순을 일으킨다고 말한다.

“사적 소유 제도 아래서는 이러한 생산력은 오직 일면적으로 발전할 뿐 이었고, 그리고 대부분 그 생산력은 파괴적인 힘으로 되었다. 더구나 이 생산력의 상당 부분은 사적 소유의 틀 내에서는 전혀 적용될 수 없었다.”(DI 60쪽 / 110쪽)

자본주의의 대공업적 생산 방식에서는 대규모의 분업과 협동을 바탕으로 사회적 차원에서 생산이 이루어지지만 생산 수단과 생산물은 자본가에 의해서 사적으로 소유되고 있다. 이러한 사적 소유는 대공업의 거대한 생산력의 발전에 장애가 되어 경제 공황과 같은 문제를 발생시키면서 생산력의 낭비를 발생시킨다. 즉 사적 소유는 생산력 발전에 질곡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생산력의 발전이 정체될 뿐만 아니라 또한 파행적인 형태로 드러나게 된다. 이처럼 생산력이 발전하면 기존의 생산 관계는 오히려 이러한 생산력의 발전에 제약 요소가 된다. 이것은 마치 매뉴팩처어의 발전에 동업 조합이 질곡이 되고, 그리고 발전하는 수공업에 소규모의 농촌 경영이 질곡이 되는 것과 같다. 그래서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이러한 사적 소유 형태를 지양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대공업의 단계에서 생산 도구와 사적 소유의 모순은 둘다 대공업의 산물이며, 대공업은 이 모순을 산출하는 데까지 발전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오직 대공업의 단계에서만 사적 소유의 지양이 가능해진다.”(DI 66쪽 / 117쪽)

자본주의가 발전한 대공업 단계에서는 생산 도구와 사적 소유, 즉 생산력과 생산 관계 사이에 모순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러한 모순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사적 소유를 지양해야 한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이처럼 생산력이 고도로 발전한 대공업 단계에서 사적 소유의 모순이 분명하게 드러

나기 때문에 이러한 모순의 제거를 통해서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이와 관련하여 공산주의 혁명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지금까지 모든 혁명에서 언제나 활동 양식은 건드리지 않은 채 방치되고, 단지 이 활동의 또 다른 분배만을, 곧 노동을 다른 사람에게 새로이 전가시키는 것만을 문제로 삼았다. 이에 반하여 공산주의 혁명은 지금까지의 활동 양식에 맞서서 [근대적 형태의] 노동을 제거하고 계급 자체와 아울러 모든 계급 지배를 폐지한다.”(DI 69-70쪽 / 122쪽)

지금까지 역사에서 발생한 사회 혁명들은 사적 소유와 이에 기반한 계급 관계를 유지한 채 단지 분배의 형태만을 문제삼았기 때문에, 기존의 사회 형태는 사적 소유와 계급 관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공산주의 혁명은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에 기반한 자본주의적 생산과 노동 방식을 제거함으로써 계급 지배 자체를 폐지한다. 그래서 사적 소유가 폐지된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생산 수단에 대한 공동체적 소유 형태를 기반으로 하여 계급 지배가 없는 상태에서 자유롭게 생산 활동을 하면서 이러한 생산력의 전유를 통해서 자아를 실현할 수 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정치 경제학 비판』의 서문에서 “근대 부르주아 사회 구성체와 더불어 인간 사회의 전사(前史, Vorgeschichte)가 종결된다”고 하면서 공산주의라는 새로운 참된 역사의 장이 열린다고 주장하였다.

5) 물질적 토대로서 시민 사회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생산력과 생산 관계의 총체로서 생산 양식은 사회 구성체의 물질적 토대로 작용하면서 정신적, 제도적인 상부 구조를 비롯한 사회 형태 전반을 규정하게 된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독일 이데올로기』에서 사회 구성체의 물질적 토대가 되는 이러한 생산 양식을 ‘시민 사회’라는 개념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전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모든 역사 단계에서 존재했던 생산력에 의해 조건지워지고, 거꾸로 그것들을 조건지우는 교류 형태가 바로 시민 사회(die

bürgerliche Gesellschaft)이다. [...] 이 시민 사회가 모든 역사의 진정한 초점이자 무대라는 것은, 그리고 현실적인 관계들을 무시하고 군주나 국가의 행위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종래의 역사가관이 얼마나 불합리한 것인가는 여기서 이미 명백해진다. 시민 사회는 생산력의 특정 발전 단계 내에서 개인들의 전체적인 물질적 교류를 포괄한다. 그것은 한 단계의 상업 및 산업 활동 전체를 포괄하고, 그런 한에서 국가 및 국민을 넘어서는 것이다. [...] 시민 사회라는 말은 소유 관계가 이미 고대 및 중세적 공동체를 벗어난 18세기에 나타났다. 진정한 의미의 시민 사회는 부르주아지와 더불어 비로소 발전한다. 그렇지만 모든 시대의 국가 및 그 밖의 관념적 상부 구조(Superstruktur)의 토대(Basis)를 구성했던, 생산과 교류로부터 직접 발전한 사회 조직은 계속 같은 이름으로 불려왔다.”(DI 36쪽/78-9쪽)

여기에는 역사적 유물론의 기본 원리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체의 물질적 토대로서 시민 사회에 대한 설명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생산력이 교류 형태, 즉 생산 관계를 규정하고, 그리고 거꾸로 교류 형태가 생산력을 규정하기도 한다. 이러한 교류 형태의 총체가 바로 시민 사회이다. 즉 생산력과 생산 관계에 기반한 물질적인 생산 활동 전반을 포괄하는 것이 시민 사회이다. 이러한 시민 사회는 국가 및 그 밖의 관념적인 상부 구조를 규정하는 토대를 구성한다. 마르크스는 『정치 경제학 비판』의 서문에서 “생산 관계 전체가 사회의 경제적 구조, 실제적 토대를 이루며, 그 위에 법적, 정치적 상부 구조가 세워진다”(KPÖ 8쪽)고 말하고 있다. 이처럼 생산력과 생산 관계를 포괄하는 생산 양식으로서 시민 사회는 사회 구성체의 상부 구조를 규정하는 물질적 토대가 되고 있다. 그래서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군주나 국가의 행위를 중심으로 역사를 기술하는 영웅 사관과 같은 종래의 역사가관을 비판하면서, 그 대신에 유물론적 역사가관의 관점에서 이러한 시민 사회를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의 변화를 설명하는 것이 진정한 역사 서술이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시민 사회’라는 개념은 생산력과 생산 관계의 총체로서 생산 양식이자 물질적 토대를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앞의 인용문에서도 언급되고 있듯이 원래 시민 사회라는 개념은 18세기 산업 혁명과 시민 혁명을 거치면서 근대적 사적 소유가 성립되고 이와 더불어 부르주아지가 등장하면서 본격적으로 형성되었다. 중세의 봉건적 질서로부터

해방되어 경제적, 정치적 자유를 얻게 된 시민 계급, 즉 부르주아지가 경제적인 사회 활동을 하던 영역이 근대의 시민 사회인 것이다.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이러한 ‘시민 사회’ 개념은 헤겔의 ‘시민 사회’ 개념을 많이 이어받은 것이다. 마르크스는 『정치 경제학 비판』의 서문에서 “헤겔이 18세기의 영국인들과 프랑스인들의 선례에 따라 ‘시민 사회’라는 이름 아래 그 전체를 요약한 바 있는 물질적 생활 관계”(KPÖ 8쪽)라고 언급하면서 자신이 헤겔의 ‘시민 사회’ 개념을 차용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헤겔은 『법 철학』에서 ‘시민 사회’를 ‘욕구의 체계’로 정의하면서 그 당시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민들이 자신들의 경제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활동하는 영역을 가리키기 위해 이 개념을 사용하였다. 시민 사회에서는 개인들이 경제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공동체성보다는 개체성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헤겔은 ‘인륜’의 발전 과정을 가족, 시민 사회, 국가로 보고 있다. 가족의 단계에서는 미분화된 공동체성의 원리가 지배하고, 시민 사회의 단계에서는 개체성의 원리가 지배하며, 국가의 단계에서는 공동체성과 개체성이 통합된 원리가 지배하는데, 이 국가가 인륜이 최고로 고양된 단계이다.

그렇지만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독일 이데올로기』에서 시민 사회라는 용어를 단지 이러한 근대의 자본주의적 경제 영역을 가리키는 좁은 의미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확대하여 상업과 산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영역, 즉 물질적 생산 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제 영역 전반을 가리키는 넓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시민 사회는 생산력과 생산 관계를 기반으로 하여 물질적인 생산 활동이 이루어지는 생산 양식이나 경제 조직이나 경제 체제를 가리키고 있다.

3. 사회적 의식과 제도의 영역으로서 상부 구조

1) 물질적 토대에 기반한 상부 구조: 물질적 토대가 상부 구조를 조건지운다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사회 형태의 특징과 그 발달 단계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한 사회 구성체 개념에서는 물질적 ‘토대’(Basis)인 생산 양식과

더불어 ‘상부 구조’(Überbau)가 핵심적인 개념이 되고 있다. 상부 구조는 물질적 토대를 기반으로 하여 형성되는데 여기에는 사회적 의식과 제도가 포함되며, 이러한 상부 구조는 물질적 토대와 결합하여 하나의 사회 구성체를 이루게 된다. 『독일 이데올로기』에서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역사적 유물론의 관점에서 물질적 토대와 정신적, 제도적인 상부 구조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유물론적 역사관은 직접적인 생활의 물질적 생산에서 출발하여 현실적인 생산 과정을 전개하고, 이러한 생산 양식과 관련되면서 그로부터 산출된 교류 형태, 즉 각기 다른 단계에 있는 시민 사회를 전체 역사의 기초로서 파악하는 데 기인한 것이다. 그리고 이 역사관은 시민 사회의 작용을 국가로 드러내 보이며, 아울러 의식, 종교, 철학, 도덕 등등의 모든 다양한 이론적 산물과 형태들이 어떻게 시민 사회로부터 생겨났는가를 설명하고, 그것들이 그 기초로부터 형성된 과정을 추적한다. 이에 따라 모든 것이 시민 사회의 총체성 속에서(이러한 다양한 측면의 상호 작용도 또한) 제시될 수 있다. 이 역사관은 관념론적 역사관처럼 모든 시대에 적용되는 하나의 범주를 찾아서 적용시키지는 않는다. 오히려 현실의 역사적 지반 위에서 관념으로부터 실천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 실천으로부터 관념적 구성물을 설명한다.”(DI 37-8쪽/80-1쪽)

유물론적 역사관은 관념론적 역사관과는 다르게 현실적인 물질적 생산 활동을 토대로 하여 사회 활동을 비롯한 인간의 삶 전반을 파악하려고 한다. 이러한 유물론적 역사관에 따르면 인간의 삶과 사회 활동을 조건지우고 움직이는 힘은 정신과 같은 관념적인 구성물이 아니라 물질적인 생산 활동이다. 물질적 생산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으로서 시민 사회, 즉 생산력과 생산 관계의 총체로서 생산 양식이 인간의 삶과 사회 활동 전반을 조건지우고 규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상부 구조에 속하는 사회적 의식이나 제도를 그 자체로서 이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면서 이것을 물질적 생산 활동인 토대를 기반으로 하여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관점 때문에 『독일 이데올로기』를 비롯한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대부분의 저작들에서 상부 구조는 대체로 물질적 토대와의 연관성 속에서 설명되고 있다.

이러한 상부 구조에 포함되는 것들은 크게 사회적 의식과 제도의 영역으로 구분될 수 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이렇게 상부 구조를 사회적 의식과 제도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독일 이데올로기』를 비롯한 그들의 저작에서 단편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이러한 구분을 할 수 있다. 위의 인용문에서 “시민 사회의 작용을 국가로 드러내 보이며, 아울러 의식, 종교, 철학, 도덕 등등의 모든 다양한 이론적 산물과 형태들이 어떻게 시민 사회로부터 생겨났는가를 설명한다”는 내용을 살펴보면, 여기서는 시민 사회를 토대로 하여 ‘국가’와 ‘의식, 종교, 철학, 도덕 등등의 다양한 이론적 산물’을 서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즉 제도의 영역인 ‘국가’와 사회적 의식의 영역인 ‘의식, 종교, 철학, 도덕’을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구분은 『독일 이데올로기』의 다른 부분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진정한 의미의 시민 사회는 부르주아지와 더불어 비로소 발전한다. 그렇지만 모든 시대의 국가 및 그 밖의 관념적 상부 구조의 토대를 구성했던, 생산과 교류로부터 직접 발전한 사회 조직은 계속 같은 이름으로 불러왔다.”(DI 36쪽/78-9쪽)

여기서도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시민 사회를 토대로 형성된 상부 구조를 ‘국가’와 ‘그 밖의 관념적 상부 구조’로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마르크스는 『정치 경제학 비판』의 서문에서도 이러한 구분을 하고 있다.

“생산 관계 전체가 사회의 경제적 구조, 실제적 토대를 이루며, 그 위에 법적, 정치적 상부 구조가 세워지고 그리고 일정한 사회적 의식 형태들(gesellschaftliche Bewußtseinsformen)이 이 토대에 상응하게 된다.”(KPÖ 8쪽)

생산 관계의 총체로서 경제적 구조가 토대를 이루며, 그 위에 ‘법적, 정치적 상부 구조’와 ‘사회적 의식 형태’들이 들어선다는 것이다. 이처럼 마르크스는 상부 구조를 법률이나 국가, 정치 조직과 같은 ‘사회 제도’의 영역과 종교나 철학, 도덕과 같은 ‘사회적 의식’의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사회 제도와 사회적 의식으로 구성된 상부 구조는 물질적

토대 위에 세워져 있으며, 이러한 물질적 토대에 의해 규정되고 조건지워진다.

2) 사회적 의식

(1) 사회적 산물로서 의식: 사회적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상부 구조의 한 형태인 ‘사회적 의식’(das gesellschaftliche Bewußtsein)을 역사적 유물론의 관점에서 물질적 토대나 사회적 조건과 관련하여 설명한다. 그들은 사회적 의식을 비롯한 인간의 의식이나 정신 일반이 물질적, 사회적 조건을 기반으로 형성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념, 표상, 의식의 생산은 우선 인간의 물질적 활동과 물질적 교류 및 현실적 생활의 언어 속에 직접적으로 편입되어 있다. … 인간은 그들의 표상, 관념 등의 생산자이지만 그는 생산력과 그에 상응하는 교류의 일정한 발전에 의해 조건지워진 그대로 현실적으로 활동한다. 의식(das Bewußtsein)은 의식된 존재(das bewußte Sein) 이외의 그 어떤 것도 아니며, 인간의 존재는 그의 현실적 삶의 과정이다.”(DI 26쪽 / 65쪽)

이념이나 표상, 의식의 생산이 물질적 활동과 물질적 교류 및 언어 속에 편입되어 있다는 것은, 인간의 의식 일반이 물질적 생산 활동 과정이나 언어를 매개로 하여 생성된다는 것이다. 물론 의식이나 관념의 생산자는 인간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활동은 생산력과 생산 관계라는 일정한 물질적 토대에 의해 조건지워져 있기 때문에, 결국 인간의 의식은 물질적, 사회적 조건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의식’을 ‘의식된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인간의 의식이나 관념이 언어를 매개로 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이들은 인간의 의식과 언어의 관련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정신’은 애초부터 물질에 ‘붙들려’ 있다는 저주스러운 운명을 짊어지고 있는 바, 여기서 그 물질은 운동하는 공기층, 음성, 요컨대 언어라는 형태

를 띠고 나타난다. 언어는 의식만큼 오래됐다. - 언어는 실천적인 것,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고 그에 따라 비로소 나 자신을 위해서도 존재하는 현실적 의식이며, 의식과 마찬가지로 욕구에서, 또 다른 인간과 교류하고자 하는 절박한 필요에서 발생한다.”(DI 30쪽 / 71쪽)

인간의 의식은 언어라는 물질과 결합되어 있으며, 따라서 언어는 의식만큼이나 오래된 것이다. 인간의 의식이 언어로부터 독립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인간의 의식은 항상 언어를 매개로 하여 존재한다. 그리고 이러한 언어는 현실 속에서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의사소통을 위해서도 반드시 요구되기 때문에 ‘현실적 의식’이자 ‘실천적 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인간의 의식은 물질적인 생산 활동과 실천적인 언어를 기반으로 하여 성립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의식의 다양한 형태들이 독자적인 역사를 지니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인간의 두뇌 안에서 형성된 환영들도 마찬가지로 인간이 물질적으로나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물질적 전제들에 연결된 생활 과정의 필연적 승화물이다. 이리하여 도덕, 종교, 형이상학, 그리고 그 밖의 이데올로기 및 그에 상응하는 의식 형태들은 더 이상 자립성의 가상(Schein)을 지니지 않는다. 그것들은 아무런 역사도 갖지 않고, 아무런 발전도 갖지 않으며, 오히려 자기의 물질적 생산과 물질적 교류를 발전시키는 인간이 자기의 현실과 함께 자기의 사고와 그 사고의 산물을 변화시킨다. 의식(Bewußtsein)이 삶(Leben)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의식을 규정한다.”(DI 26-7쪽 / 66쪽)

도덕, 종교, 형이상학과 같은 이데올로기나 그 밖의 다른 사회적 의식들은 그 자체의 역사를 갖고 있는 자립적인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생산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파생적인 것에 불과하다. 즉 의식은 그 기원이나 내용을 물질적인 것에 두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의식이 삶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의식을 규정한다”고 말한 것이다.

“의식은 처음부터 이미 하나의 사회적 산물이며, 무릇 인간이 존재하는 한 영속적으로 존재한다.”(DI 31쪽 / 71쪽)

인간의 의식은 ‘사회적 산물’로서, 물질적 생산 활동이나 사회적 조건을 기반으로 하여 형성되었다. 의식은 가장 단순한 감각적 단계에서부터 시작하여 아주 추상적인 이론적 단계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물질적, 사회적 삶에 의해서 조건지워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정치 경제학 비판』의 서문에서 이러한 점을 강조하여 “인간의 의식이 인간의 존재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인간의 존재가 인간의 의식을 규정한다”(KPÖ 9 쪽)고 말하였다. 이처럼 사회적 의식은 물질적인 생산 활동을 토대로 하여 형성된 사회적 산물로서, 이러한 사회적 존재에 의해서 규정된 것이다.

(2) 계급적 이해 관계의 반영으로서 이데올로기: 한 시대의 지배적인 사상은 지배 계급의 사상이다.

사회적 산물로서 사회적 의식을 ‘일상적 의식’과 ‘이데올로기’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일상적 의식이 아직 이론적으로 체계화되지 않은 사회적 의식이라면, 이데올로기는 이론적으로 체계화된 사상이나 신념 체계라고 할 수 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이데올로기, 즉 종교나 철학, 도덕과 같이 이론적으로 체계화된 사상이나 신념 체계를 물질적 토대와 관련하여 설명하려고 한다.

“의식, 종교, 철학, 도덕 등등의 모든 다양한 이론적 산물과 형태들이 어떻게 시민 사회로부터 생겨났는가를 설명하고, 그것들이 그 기초로부터 형성된 과정을 추적한다.”(DI 38쪽 / 80쪽)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종교나 철학, 도덕과 같은 이데올로기의 기원이나 형성 과정을 시민 사회로부터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 이데올로기는 물질적인 생산 활동이 이루어지는 시민 사회를 기반으로 하여 형성된 것으로서 이러한 시민 사회로부터 그 형태를 규정받는다. 시민 사회는 물질적인 생산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인데, 이러한 생산 활동의 과정에서 개인들은 서로간에 일정한 생산 관계를 맺게 된다. 즉 개인들은 생산 수단의 소유 형태나 생산물의 분배 형태, 구성원의 조직 형태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사

회 관계를 맺게 되는데, 이러한 생산 관계에서 개인들이 차지하는 위치, 즉 계급에 따라서 물질적 이해 관계에서도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소유나 분배, 조직을 둘러싸고 개인들 사이에는 계급적 지위나 물질적 이해 관계에 따라 대립과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이데올로기가 바로 이러한 계급적 지위나 물질적 이해 관계를 반영하고 있다고 본다. ‘사회적 존재’가, 즉 생산 관계 속에서 개인이 차지하고 있는 계급적 위치나 물질적 이해 관계가 ‘사회적 의식’을, 즉 개인의 사상이나 이데올로기를 규정한다. 개인들은 자신의 계급적 지위나 물질적 이해 관계에 따라 서로 다른 사상이나 이데올로기를 갖게 된다. 즉 자신의 계급적 지위나 물질적 이해 관계를 옹호하는 사상이나 이데올로기를 형성하게 된다. 예를 들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가 계급은 소유욕이나 경쟁과 같은 자본주의적 원리를 옹호하는 이데올로기를 형성하게 되며, 이에 비해 프롤레타리아 계급은 평등이나 연대와 같은 새로운 사회의 원리를 옹호하는 이데올로기를 형성하게 된다. 자본가 계급이 자신의 물질적 이해 관계를 대변해 주는 보수적 이데올로기를 선호한다면, 프롤레타리아 계급은 기존 질서의 억압과 착취를 비판하면서 새로운 질서를 추구하는 진보적 이데올로기를 선호한다. 이처럼 사상이나 이데올로기는 계급적, 물질적인 이해 관계를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한 시대를 지배하는 사상이나 이데올로기는 지배 계급의 사상으로서 지배 계급의 위치나 물질적 이해 관계를 반영하고 있다. 즉 물질적 토대인 생산 관계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계급이 상부 구조인 이데올로기 영역에서도 지배력을 발휘하여 그들의 사상이 지배적인 사상이 된다는 것이다.

“어떤 시대에서나 지배 계급의 사상이 지배적인 사상이다. 다시 말해서 사회의 지배적인 물질적 세력인 지배 계급이 동시에 그 사회의 지배적인 정신적 세력이라는 말이다. 물질적인 생산의 수단을 통제하는 계급은 그 결과 정신적인 생산의 수단도 통제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정신적인 생산 수단을 가지지 못한 계급의 사상은 대체로 그것에 종속된다. 지배적인 사상은 지배적인 물질적 관계들의 관념적 표현, 사상으로서 파악된 지배적인 물질적 관계일 뿐이다. ... 지배 계급은 사상의 생산자로서 지배하고 그 시

대의 사상의 생산과 분배를 규제하기 때문에, 그들의 사상이 지배적이라는 것은 자명하다.”(DI 46쪽 / 91-2쪽)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물질적 힘을 장악하고 있는 지배 계급이 나아가서 사상의 영역에서도 지배력을 발휘하여 사상까지도 지배한다고 보았다. 즉 사상은 물질적 이해 관계를 대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배 계급의 사상이 그 시대의 지배적인 사상이 된다. 지배 계급은 그 시대의 사상의 생산과 분배도 통제함으로써 정신적 분야까지도 지배하게 된다. 예를 들면 봉건 사회에서는 봉건 귀족이 경제력과 더불어 사상의 영역까지 장악하게 되어 ‘충성’이나 ‘명예’를 강조하는 이데올로기가 그 시대의 지배적인 이데올로기가 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가 계급이 경제적인 지배력을 확보하면서 사상의 영역까지 장악하게 되어 ‘경쟁’이나 ‘생산성’을 강조하는 이데올로기가 그 시대의 지배적인 이데올로기가 된다. 그리고 근대 초기처럼 왕권과 귀족, 부르주아지가 서로 대립하면서 아직 경제적 지배권을 확보한 계급이 등장하지 않았을 때는, 이러한 관계를 반영하여 “권력 분립 이론이 지배적인 것임이 입증되고, 그것이 하나의 ‘영원한 법’으로 표방된다”(DI 46 / 92쪽)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러한 지배적 사상의 계급적 성격이 항상 곧바로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지배 계급은 자신의 지배를 더욱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보편적 이해 관계를 대변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해야 하며 따라서 지배적인 사상도 보편성을 갖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게 된다.

“종래의 지배 계급에 대체되는 새로운 계급은 각각 그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서라도 자신의 이익을 사회 구성원 모두의 공동 이익으로, 다시 말해서 관념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렇게 그들은 자신의 사상들에 보편성의 형식을 부여하고, 그것들을 유일하게 합리적이고 보편 타당성을 지닌 것으로 표현해야 하는 것이다.”(DI 47쪽 / 93-4쪽)

기존 질서에 대항하여 새로운 질서를 창출하려는 새로운 지배 계급은 변혁이라는 목표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자신들이 보편적인 공동 이익을 옹호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한다. 그래서 그들이 내세우는 사상도 마치 보편

성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한다. 그러나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이것은 하나의 ‘가상’이자 ‘환상’이라고 비판하면서 실제로는 이러한 지배적 사상에는 지배 계급의 계급적, 물질적 이해 관계가 반영되어 있다고 본다. 이처럼 한 사회를 지배하는 이데올로기에는 경제력을 장악하고 있는 그 시대의 지배 계급의 이해 관계가 반영되어 있다. 이데올로기는 물질적 토대에 의해서 조건지워지고 규정되는 것이다.

3) 사회 제도: 계급적 이해 관계의 반영으로서 국가와 법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독일 이데올로기』에서 역사적 유물론의 관점을 정립하면서 상부 구조의 한 영역인 ‘제도’(Institution)를 물질적 토대나 사회적 조건과 관련하여 설명한다. 상부 구조에 속하는 ‘국가’나 ‘법’과 같은 사회 제도가 물질적 토대를 기반으로 하여 형성되며, 여기에는 이러한 물질적 조건이나 계급적 이해 관계가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정치 경제학 비판』의 서문에서 “생산 관계 전체가 사회의 경제적 구조, 실제적 토대를 이루며, 그 위에 법적, 정치적 상부 구조가 세워진다”(KPÖ 8쪽)라고 총괄적으로 말하고 있다.

(1) 계급 지배의 도구로서 국가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국가’(Staat)의 형태가 시대에 따라서 다양한 변화를 겪게 된다고 하면서 이러한 변화는 물질적 토대인 생산 양식의 변화와 연관되어 있다고 말한다.

“한 국가의 다른 국가에 대한 관계뿐만 아니라 이 국가 자체의 전반적인 내부 구성까지도 그들의 생산의 발전 단계와 내부 및 외부 교류의 발전 단계에 따라 규정된다.”(DI 21쪽 / 59쪽)

국가의 기본적인 구조나 성격은 생산 양식의 발전 단계, 즉 생산력과 생산 관계의 발전 단계에 의해서 규정된다. 즉 국가의 형태가 물질적 토대인 생산 양식, 특히 소유 형태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래서 시대에 따라 형성된 노예제, 봉건제, 자본주의라는 각각의 생산 양식의 변화에 상응하여

노예제적 국가, 봉건제적 국가, 자본주의적 국가가 들어선다. 이처럼 국가 그 자체는 자립적인 존재로서 독자적인 역사를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생산 활동에 의해서 조건지워지고 규정되는 존재인 것이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상부 구조의 한 형태로서 국가가 걸으려는 그 사회 구성원 전체의 공동 이익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국가는 생산 관계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계급의 물질적 이해 관계를 대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수 이익과 공동 이익 사이의 이러한 모순으로 인해 공동 이익은 국가라는, 즉 현실의 개별 이익과 전체 이익으로부터 분리된 하나의 독립적 형태를 취한다. 그와 동시에 공동 이익은 하나의 환상적인 공동체로서의 성격을 갖지만, 언제나 그 공동체는 [...] 계급에, 다시 말해서 그와 같은 각각의 인간 무리로 나뉘어지고 그 가운데서 하나가 다른 모두를 지배하는 계급에 그 실질적 토대를 두고 있다. 이것으로부터 국가 내의 모든 투쟁, 즉 민주제, 귀족제 그리고 군주제 사이의 투쟁, 선거권 등등을 위한 투쟁은 각 계급 상호간의 현실적인 투쟁이 행해질 때의 환상적 형태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도출된다.”(DI 33쪽 / 75쪽)

분업 및 사적 소유가 등장하면서 개인들 사이에는 물질적 이해 관계의 대립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서 개인이나 집단의 ‘특수 이익’과 사회 전체의 ‘공동 이익’이 분리되어 대립하게 되었다. 이때 국가는 사회 전체의 공동 이익을 대변하는 공동체적 조직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환상에 불과한 것이다. 국가는 계급적으로 분열된 사회 관계를 토대로 하여 성립된 것이므로 국가는 환상적 공동체에 지나지 않는다. 국가의 조직이나 정치 체도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갈등이나 투쟁도 실제로는 계급들 사이의 이해 관계의 갈등과 대립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물질적인 토대에서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지배 계급이 이러한 정치적 갈등과 대립에서도 승리함으로써 국가 조직도 장악하게 된다. 그래서 국가는 특정한 지배 계급의 이해 관계를 대변하는 계급 지배의 도구가 된다.

그런데 국가가 표면적으로는 공동의 이해 관계를 대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지배 계급이 자신의 지배를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국가를 통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처럼 속이기 때문이다. 어떤 계급

이 지배 계급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보편적 이익을 대변하며 나아가 국가 권력도 보편적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처럼 보여야 다른 계급이나 구성원들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동체의 보편적인 이해 관계를 대변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의 가상에 불과하다. 국가는 지배 계급의 특수한 이익을 옹호하는 계급적 성향 띠고 있는 것이다.

“일정한 생산력 내에서 적용될 수 있는 조건들은 사회의 특정한 한 계급의 지배 조건이며, 그들의 소유로부터 비롯된 사회적인 힘은 그 당시의 국가 형태 속에서 그 실천적, 관념적 표현을 갖게 된다.”(DI 69쪽 / 122쪽)

지배 계급은 그 시대의 일정한 생산력과 생산 관계라는 물질적 조건을 바탕으로 하여 자신의 지배력을 강화하려고 하며, 이러한 것은 국가의 형태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그래서 지배 계급은 그 시대의 일정한 물질적 조건 속에서 자신들의 이해 관계를 옹호하기 위한 국가 조직을 만들게 된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근대 국가의 이러한 계급적 성격을 사적 소유라는 물질적 조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사적 소유는] 일체의 공동체적 가상을 벗어버리고 소유의 발전에 대해 국가가 행사할 수도 있는 일체의 영향을 배제한 순수한 사적 소유로까지 발전하는 것이다. 이 근대적인 사적 소유에 근대 국가가 조응한다. [...] 공동체로부터 사적 소유를 해방시킴으로써 국가는 시민 사회의 옆에 있으면서 동시에 그 외부에 있는 하나의 특수한 존재가 된다. 그러나 국가는 부르주아지가 국외적으로나 국내적으로 자신들의 소유물과 이해 관계를 상호 보장하기 위하여 반드시 취해야만 하는 조직 형태에 불과한 것이다.”(DI 62쪽 / 112쪽)

사적 소유의 형태는 고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사적 소유가 가장 순수한 형태로 등장한 것이 바로 근대적 사적 소유 즉 자본주의적 소유이다. 여기서는 개인들은 타인이나 공동체의 간섭을 받지 않는 자기 마음대로 소유물을

관리하고 처분할 수 있는 배타적 소유권을 갖게 된다. 근대 국가, 즉 자본주의적 국가는 바로 이러한 근대적 사적 소유라는 물질적 조건을 토대로 하여 형성된 것이다. 부르주아지는 자신들의 소유물을 보호하고 자신들의 물질적 이해 관계를 옹호하기 위해서 경제적 자유와 사적 소유권을 보장하는 이러한 근대 국가를 만든 것이다. 근대 국가는 지배 계급인 부르주아지의 계급적 이익을 옹호하기 위한 도구인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이러한 ‘국가’ 개념이 헤겔의 ‘국가’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헤겔은 『법 철학』에서 인륜이 최고로 구현된 단계를 국가로 보고 있다. 인륜의 세 단계의 발전 과정을 거치는데, 가장 낮은 단계는 미분화된 공동체성을 바탕으로 하는 ‘가족’이며, 다음 단계는 시민들이 개별성을 바탕으로 개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활동하는 ‘시민 사회’이며, 최고의 단계는 이러한 개별성과 공동체성이 통합된 ‘국가’이다. 헤겔에게 있어서 국가는 시민 사회보다 더 진전된 사회 형태로서 인륜의 최고 구현체인 것이다.

그러나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이러한 헤겔의 국가 개념을 비판한다. 국가는 시민 사회로부터 독립되어 있거나 또는 시민 사회를 초월하여 존재하는 특수한 존재가 아니다. 국가는 시민 사회로부터 직접적으로 나온 것이며 따라서 “시민 사회의 작용을 국가로 드러내 보이는 것”(DI 37-8쪽/80-1쪽)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국가는 그 안에서 한 지배 계급의 개인들이 자신들의 공동 이익을 주장하고, 한 시대의 시민 사회 전체가 총괄되는 형식이다.”(DI 62쪽/113쪽)

국가는 시민 사회 전체를 총괄하는 하나의 형식으로서 여기에는 시민 사회에서의 개별성, 즉 개인들의 개별적인 욕구 충족 행위가 반영되어 있다. 국가는 시민 사회에서 주도권을 차지하고 있는 지배 계급의 물질적 이해 관계가 반영되어 있다. 그래서 국가는 시민 사회에 조응하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시민 사회가 물질적 토대를 이루고 이것에 상응하여 그 위에 국가라는 상부 구조가 들어서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개별성과 공동체성이 통합된 인륜의 최고 단계가 아니라 시민 사회의 개별성을

반영하는 단계에 불과하다. 이처럼 마르크스와 엥겔스에 있어서 국가는 시민 사회와 동일한 단계에 있으면서 이러한 시민 사회에서 형성되는 물질적, 계급적 이해 관계를 반영해 주는 하나의 형식이자 조직체인 것이다.

(2) 계급적 이해 관계의 산물로서 법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국가와 마찬가지로 법률 제도도 물질적 토대를 기반으로 형성된 상부 구조의 한 형태로서 일정한 계급적 이해 관계를 반영하고 있다고 본다. 법도 국가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독자적인 역사를 갖고 있는 자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물질적 생활 조건으로부터 조건지워지고 규정되는 존재이다. 법의 내용이나 형태는 물질적 토대의 변화에 따라서 변화하게 된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역사적 유물론의 관점에서 ‘사법’(私法)의 등장을 소유 형태의 변화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사법(Privatrecht)은 자연 발생적인 공동체가 해체되면서 사적 소유(Privateigentum)와 동시에 발전한다. 로마인의 경우 사적 소유와 사법의 발전이 더 이상의 산업적, 상업적 결과를 낳지 못했는데, 그것은 그들의 생산 양식 전반이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대 민족의 경우 봉건적 공동체가 산업과 상업에 의해 해체되는 곳에서는 사적 소유와 사법의 등장과 함께, 보다 폭넓은 발전이 가능한 하나의 새로운 국면이 등장하였다. 중세의 광범위한 해상 무역을 경영한 최초의 도시 아말피에서는 또한 해상법이 발전하였다. 산업과 상업이 사적 소유를 더욱 발전시키게 되자, 처음에는 이탈리아에서 그리고 나중에는 다른 국가들에서 고도로 발달한 로마 사법이 곧바로 재수용되면서 권위를 가지기에 이르렀다.”(DI 62-3쪽 / 113쪽)

사법은 개인들 상호간의 권리나 의무 관계를 규정한 법인데, 이것은 주로 민법이나 상법처럼 재산권이나 계약, 상업적 거래를 둘러싼 개인들 사이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법은 원시 공동체적 소유가 해체되고 개인의 사적 소유가 인정되어 개인들 사이에 재산권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기 시작할 때부터 발전하기 시작했다. 고대 로마에서도 노예제를 바탕으로 귀족이나 시민들이 부를 축적하기 시작하면서 사법이 발전하였다. 그러나 노예제라는 생산 양식의 한계로 인해서 상업과 산업의 발전이 한계에 부딪치면서 더 이상 사법도 발전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근

대에 들어와 봉건제가 해체되면서 상업과 산업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이를 바탕으로 근대적 사적 소유가 확산되자 고대의 로마법과 같은 사법이 다시 도입되기도 하는 등 사법이 크게 발전하였다. 이러한 사법의 발전 과정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법률 제도는 물질적 토대를 기반으로 하여 형성된다.

“산업과 상업의 발전으로 인해 새로운 교류 형태가 형성될 때마다(예컨대 보험 회사 등), 법은 언제나 그러한 형태들을 소유 취득 형식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없다.”(DI 64쪽 / 115쪽)

근대에 상업과 산업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생산 관계가 형성되면 이것을 반영하여 새로운 법이 등장하게 된다. 예를 들면 보험 회사라는 것이 등장하면 이와 더불어 이러한 보험 회사의 활동과 관련된 법이 만들어지게 된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법, 특히 사법은 경제 활동 및 사적 소유의 발전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사법은 개인의 사적 소유권을 보호하거나 개인들 사이의 상업적 거래에서 개인의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따라서 사법은 물질적 토대에서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지배 계급의 소유권이나 경제적 이익의 보장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법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보편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존재가 아니라 지배 계급의 물질적, 계급적 이해 관계를 옹호하기 위한 존재인 것이다.

그런데 법은 표면적으로는 보편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이것은 보편성의 가상을 띠고 있는 국가를 매개로 법률이 제정되어 집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국가는 그 안에서 한 지배 계급의 개인들이 자신들의 공동 이익을 주장하고, 한 시대의 시민 사회 전체가 총괄되는 형식이므로, 그로부터 모든 공동 제도들은 국가를 매개로 삼게 되며, 하나의 정치적 형태를 보유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그러므로 법률이 의지에, 그것도 현실적인 토대로부터 분리된 자유 의지에 기초하고 있다는 환상이 생기는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법(Recht)도 법률(Gesetz)로 환원된다.”(DI 62쪽 / 113쪽)

법이 물질적 토대나 경제적 이해 관계와는 상관없이 개인들의 순수한

자유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환상이다. 법이 개인들의 자유 의지에 바탕하여 정의감이나 보편적 이성을 구현하고 있다는 보는 것은 하나의 환상이자 가상이라는 것이다. “법이 순수한 자유 의지로 환원된다는 이러한 법률적 환상(juristische Illusion)”(DI 63쪽 / 114쪽)이 발생하는 이유는, 법이 중립성과 보편성이라는 가상을 갖고 있는 국가를 매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민 사회를 총괄하는 형식으로서 국가는 지배 계급의 물질적 이해 관계를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중립성이나 보편성을 지니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계급적인 국가를 매개로 하여 제정되고 집행되는 법도 마찬가지로 계급적 성격을 띠게 된다.

이처럼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국가뿐만 아니라 국가를 통해서 제정된 법률도 중립성과 보편성을 표방하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계급적 이해 관계를 반영하고 있다고 본다. 법이 보편적 정의를 구현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가상이자 환상인 것이다. 상부 구조의 한 형태로서 법도 국가와 마찬가지로 계급적 이해 관계의 산물인 것이다.

4. ‘사회 구성체’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사회의 형태와 발전 단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물질적 토대와 이에 기반한 상부 구조로 구성된 사회 구성체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독일 이데올로기』나 또는 좀더 정식화된 형태로 표현되고 있는 『정치 경제학 비판』의 서문이나 『자본론』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애매하거나 또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내용들이 있다. 여기서는 사회 구성체 논의와 관련해서 논란이 되는 몇 가지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1) 토대와 상부 구조의 구분의 문제: 과학은 토대에 속하는가, 상부 구조에 속하는가?

사회 구성체 논의와 관련해서 제기되는 문제들 중의 하나는 물질적 토대와 상부 구조의 구분이 분명한가이다. 과연 ‘과학’은 물질적 토대에 속하는가, 아니면 상부 구조에 속하는가?